

29일 Market Index			
코스피	2443.92	코스닥	843.94
	(+8.98)		(+10.43)
금리	3.249	환율	1302.70
	(-0.009)		(+3.90)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3社
4개월 내 합병”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지독한 다운턴 공포에도 성장 자신 AI·챗봇 확대로 DDR5 원년 될 것”

SK하이닉스 정기 주주총회

유연 대응으로 위기 극복·도약
추가 감산 가능성엔 선 그어
DDR5 등 첨단제품 수요 증가
1분기 바닥 가능성에 힘 실어

SK하이닉스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향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연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29일 이전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7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를 사외이사로,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 이사진 보강을 포함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우려를 피하지 않았다. 적자 우려에 대한 주주 비판에 대해, 1년에 20조원을 넘는 투자와 6개월간 600개 이상 공정을 거친 제품이 ‘센트’ 단위에 팔리고 있다며, ‘지독한’ 메모리 사이클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하는 경영진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제7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격 결정권이 없는 메모리 업체 한계도 고백했다. 엔비디아에 200달러가 안되는 가격으로 HBM메모리를 공급하는데, 이를 탑재한 제품은 1만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것.

감산 노력을 멈춘 D램 업계 전체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시장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며, 3사가 엄청난 공급을 지속하면 가격도 더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상승기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치킨게임’이 확대하면 추후 가격 상승폭이 지나치게 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박 부회장이 비관론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박 부회장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설비투자 50% 삭감 계획에 대해서는 양산 일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의미라며 기술 개발은 계획대로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예컨대 작을 수록 비싼 모바일 용집과 달리, 최근 떠오르는 시장인 서버용집은 미세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만큼 신규 기술 투자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가 감산 가능성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긍정적인 신호도 내놔다. 광저정 시장은 DDR5를 비롯한 첨단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1분기 ‘바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박정호 부회장도 AI와 챗봇 등이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DDR5 원년이 될 것이라며, HBM과 CXL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도 예상했다. HBM3A와 HBM4 등 차세대 제품도 예고했다.

원가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a나노 D램과 176단 낸드 등 선단공정 비중을 각각 20%,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원가를 전년 대비 10% 이상 절감했다고 소개했다. 운용 비용도 10년만에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출발 Departures							
편명	도착지	체크인	탑승구	현황	시간	변경	편명
KC 910	알마티	K11-K16	34	탑승준비	13:45		LJ 213
LH 713	프랑크푸르트	J19-J29	46	출발	13:45		TW 671
UO 619	홍콩	J12-J16	114	탑승마감	13:55		BI 652
CZ 682	선양 (상양)	H01-H18	127	탑승마감	14:05		OZ 114
MU 5042	상하이/ 푸둥	F01-F14	121	탑승준비	14:15		MU 2018
TW 251	타이베이	F19-F38	115	탑승중	14:15		NX 821
Z2 885	마닐라	K19-K22	124	탑승중	14:20		CA 144
ZG 042	도쿄/ 나리타	G10-G18	108	탑승준비	14:20		OM 302
CA 124	베이징	M19-M25	115	탑승중	14:20		OZ 713
RS 713	오사카/ 간사이	D01-D05	101	출발	14:25		RS 723
BX 174	오사카/ 간사이	K29-K35	101	출발	14:35		XJ 701
CA 140	항저우	L06-L08	101	탑승준비	14:40		CA 402
7C 1114	도쿄/ 나리타	L08-L10	101	탑승준비	14:40		OZ 202
7C 1802	오카나와	L08-L10	101	탑승준비	14:45		LJ 203
YP 101	로스앤젤레스	J01-J08	101	탑승준비	14:45		TW 293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 여행·휴가비 600억 쏜다 내수진작 통해 경제활성화 매진

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방한 관광객 1000만명 회복 목표
비자·항공편 등 여건 개선 추진

윤석열대통령이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일반국

민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18만명에게 놀이시설 1만원 등 총 134만명에게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비와 전통 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높인다.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와 유인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 여건 개선과 K-콘텐츠 개발도 이뤄진다.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할 계획이다.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 편의성도 높인다.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되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동행축제를 계기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하고,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페이·유니온페이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접근성을 높인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해외매출 2배 성장 네카오, 올해 더 늘린다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웹툰,美기업과 톱티어 도약
SM 인수 카카오, K팝 공략 가속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글로벌 시장서 승부수를 띄운다.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글로벌 스케일 엔터테인먼트사로 자리매김한 카카오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 포쉬마크·왓패드 등과 시너지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1위 스토리테크 플랫폼이라는 위치를 넘어 ‘전 세계 톱티어(top-tier)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 사옥 전경 및 카카오 사내 전경.

네이버웹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작자가 모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실제 마블, DC 코믹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러브콜이 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파트너십을 잇따라 체결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

쉬마크’과 북미 웹소설 자회사인 왓패드와 손잡고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포쉬마크 앱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비디오와 가상 쇼핑 기능인 ‘포쉬파트’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기술을 네이버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며 “왓패드의 콘텐츠를 접목시켜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축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을 포함하면 해외 매출이 50%에 육박한다”며 “글로벌 성장세는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4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조실, 文정부 임명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감사 착수
▲ 한동훈, 내일 국회서 與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사진 뉴시스

▲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 마무리… 사무총장 유임은 여진
▲ 민주, 외교과서 왜곡에 “尹 선의가 조롱 당해”



▲ 정의당 “대장동 특검, 내일 법사위 상정… 우리가 이끌어” /사진 뉴시스
▲ 국회 법사위, 내일 ‘대장동 특검법’ 상정

韓 금융이해력 66.5점… ‘복리이자 계산’ 이해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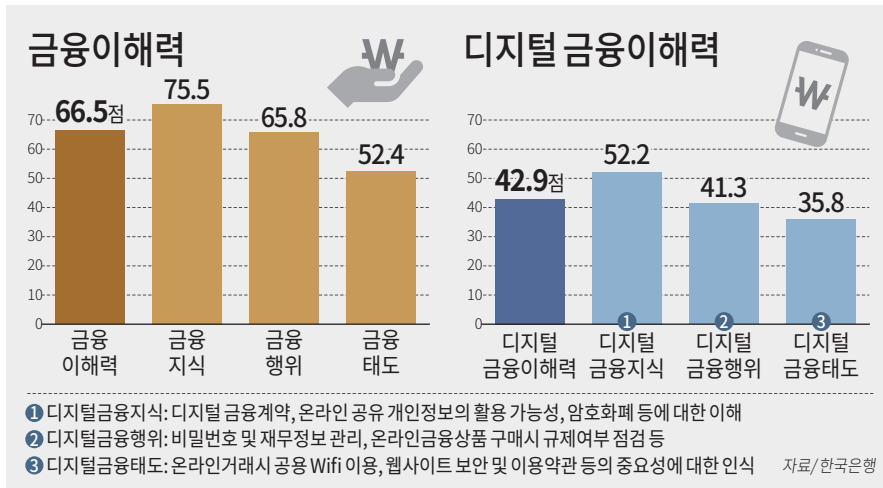
한은,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이자개념 93.8점, 복리이자 41.4점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 42.9점 불과
고소득 일수록 금융이해력 더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낮아, 온라인 거래 확대에도 재무 정보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5점으로 2년전(65.1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



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정도를 조사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만 18~79세 국민을 대상으로 총 2400개 구를 조사했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지식은 7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행위(65.8점), 금

융태도(52.4점)가 뒤를 이었다.

금융지식을 항목별로 보면 이자개념에 대한 이해는 93.8점으로 높았지만, 복리이자 계산에 대한 이해(41.4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행위의 항목을 보면 저축활동은

97.8점으로 적극적인 반면 재무상황점검(55.7점), 장기 재무목표설정(48점) 등 재무관리 활동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태도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경우가 52.3점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미세하게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일반 금융이해력의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지식이 5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행위 41.3점, 금융태도 35.8점 순이었다.

디지털 ▲금융지식은 디지털 금융계약, 개인정보의 활용, 암호화폐 등에 대한 이해 ▲금융행위는 비밀번호 및 재

무정보 관리 ▲금융태도는 온라인 거래 시 보안 및 약관등의 중요성 인식 등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정점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이해력이 떨어졌다. 또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48.8점으로 높았고, 중소득층은 44점, 저소득층은 39.4점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금융이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부 출산장려책, 혼인부부→출산아동 중심 전환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출산보조금 등 효과 없으면 버리고
조기입학·학교잔류기간 단축으로
성인인식 연령대 20대로 낮춰야
출산 희망자에 의료지원 강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근부회장. /무협

출산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 효과를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출산장려책도 혼인부부 중심서 출산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 주제 ‘제34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스페인의 저출산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1950년대나 2000년대 현대 여성 모두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비율은 90% 수준으로 동일했지만, 1980년대까지 90%의 여성이 25세부터 출산을 원했으나, 최근 출산을 희망하는 20대는 20%, 30대는

50%로 저조하다 40대가 되어야 90%로 높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최초 출산 연령은 1985년 평균 25세였으나 현재는 32.5세로 높아졌고, 둘째 아동 출산 평균 연령은 45세가 됐고 합계 출산율도 약 30% 하락했다.

정 부회장은 “이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은 ‘어려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파트너 부재, 주거·소득·가사 부담 등 물리적 여건, 건강·연령 등으로 집약된다”며 “파트너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입학과 학교 잔류기간 단축 등을 통한 성인 인식 연령대를 20대로 낮추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도 혼인 부부 중심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인력 부족,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독창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과학적 원인 진단과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유럽연합(EU)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인구정책은 개별 회원국에서 다루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 부족 대응은 유럽연합 집행위 차원에서 이뤄진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에 불참하는 여성 인력과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 노동 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 확대와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이날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수행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사업을 취

합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인구정책과 사업 간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가 전제돼야 하기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욱 인천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진보를 통해 노동 집약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후 우리 경제는 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적응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효 노동 인력의 수요 예측 및 공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정책의 체계적 운용, 권한과 예산 부여를 위해선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SK하이닉스 정기주총’서 계속



인텔서 인수 낸드사업부 ‘솔리다임’과 시너지 낙관

중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지속키로 했다. 미국에 지을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센터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미국에 주로 있기 때문. 미 중무역갈등과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도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사업부인 솔리다임과의 시너지도 낙관했다. 이미 SSD 사업 확대 기반을 확대하고 후공정 역량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올해 통합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낸드사업 비중 30% 이상 메모리 다운사이클 끝나면 실적에 본격적 ‘긍정 영향’

실제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낸드 사업 비중을 처음으로 3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D램에 치중된 사업 구조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상황, 낸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eSSD도 낸드 사업에서 비중이 10% 중반에서 지난해 40%초반까지 크게 성장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번 메모리 ‘다운사이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 관계자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도 빼놓지 않았다. 투자 효과 극대화에 더해 잉여현금흐름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ESG 전략 프레임워크 ‘PRISM’을 소개했다.

박 부회장은 “주주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리더십을 사업 성과로 연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미·한일 협력 강화토대 충족”… 김성한 안보실장, 자진사퇴

“앞으로도尹정부 성공위해 최선”

교체설에 휩싸였던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게 됐다. 김 실장의 교체설은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

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의 명의의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문화비 소득공제 10%p ↑

비상경제민생회의

수출 부진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관광 활성화로 경제적 부가까지 창출

여행가서 숙박하는 국민 100만명이 3만원 할인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을 예약한 18만명도 1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KTX·SRT 등 철도와 항공 이용시 15만3000명에게 1만~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영화, 연극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시 소득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에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즉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 가량 재정을 쏟아.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

내수 붐업(Boom-up) 패키지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실속 정부지원
50여개 메가이벤트 연중 개최로 관광붐 확산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대규모 기업 할인행사 실시	필수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지역축제 스케일업	■ 전국 지역축제 테마별 연계해 개최 ■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전국적 개최, 전방위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국내 소비 기반 강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상향 (4~12월) 문화비 30 → 40% 전통시장 40 → 50%	
지역·소상공인 상생 생계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상향 지류 50 → 100만 카드 100 → 150만 모바일 50 → 150만 ■ 마트·전통시장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 20~30% 할인 (4~6월) ■ 통신요금 마일리지 납부 절차 간소화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놀이동산 온라인 예약 1만원 쿠폰
KTX 5월 4인동반석 어른 50% ↓
SRT 봄·가을 조기예약 등 최대 30%

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여행비 할인 혜택을 준다.

예컨대, 네이버, 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100만명에게 3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여행비 10만원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4월 서울페스타, 5월 봄빛 동행축제
6월 '여행가는 달' 지정 쿠폰 지급
지자체, 공공주차장 등 무료 개방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철도 할인 폭도 대폭 늘렸다.

KTX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자녀(2명부터) 등록 가족이 4인 동반석을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 할인이 50%,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SRT도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간 중 승차율, 조기예약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각각 오른다.

기업의 문화 관련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도 유원시설, 케이볼카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최대 170억원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온라인 소평몰 등에서도 20% 할인을 적용한다.

전국 테마별 지역 축제도 확대한다.

4월 서울페스타, 5월 K-팝 부산 드림콘서트, 봄빛 동행축제 등이 연이어 열린다. 6월은 '여행가는 달'로 정해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7~8월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10월 부산국제영화제와 e스포츠대회(롤드컵) 등도 이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내 숙박·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한다.

4월부터 공휴일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할인 이용권이 지급된다. 5월 5~7일·5월27~29일 두 차례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지역 특화 간식을 최

대 33% 할인한다.

11월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존 15일에서 20일간 확대, 운영한다. 앞서 5월에는 전국 면세점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 A)'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방한 관광객도 올해 1000만명 이상 목표로 중국·일본·동남아 등 항공을 80~90% 가량 증편한다.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오는 5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이 대외적 영향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여가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생계비마저 빠듯한 상황에서 반짝 할인 쿠폰을 쏟아고 내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겠다"며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의 편의를, 지역의 온기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온누리상품권 연중판매… 가맹점 확대도

중기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보고
'중소·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

정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이벤트를 꾸준히 연다.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하고 가맹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5월에 조기 실시해 상반기 소비를 진작시킨다. 또 9월과 12월을 포함해 3회로 늘려 연다. 지난해 실적의 2배 이상인 3조원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할인, 지역축제·행사, 해외마켓 연계 등 세부프로그램도 다양해진다.

특히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확장된다. 동행축제 주요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해 지역축제와 연계한다. 유통제조·플랫폼 대기업 220여개사, 소상공인 상점가·전통시장 1800여곳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함께 캠페인 확산에 노력한다.

9월 동행축제는 추석명절 전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12월의 경우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협·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을 연다.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했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4월부터 연중 진행한다. 개인별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지류 100만원, 카드 150만원, 모바일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20만개 돌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미가맹 상점 대상으로 가맹을 독려하면서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소속 가맹점을 늘린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개편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 국내외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중기부는 팔도장터 열차와 같은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시장 해외홍보 설명회를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덕수,尹 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국무총리)

'남는 쌀 강제매수법' 작심 비판
시장 수급 조절 무력화 시킬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60년대 유럽의 가격 보장제가 생산량 증가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사례, 태국의 2011년 가격개입정책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 수기자 hys@

카카오, 올 북미 웹툰·웹소설 진출 본격화

》1면 '해외매출 2배 성장'서 계속

◆카카오, K팝 시장 공략

SM을 인수한 카카오는 글로벌 콘텐츠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K팝 시장 공략에 뛰어들 것으로 계획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엔터와 글로벌 웹툰 자회사인 카카오픽

코마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당초 매출은 2조 5699억원, 영업이익은 2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M을 인수하며 매출 3조 5000억원, 영업이익 3700억을 기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매출은 4조 40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 달성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출의 35%가 웹툰에서 발생하고, 30%는

K팝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는 또 SM과 협업을 통해 웹툰·웹소설 분야 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웹소설에서 SM 가수를 등장시키면 팬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북미 웹소설 진출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타파스엔터는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로맨스의 축으로, 우시아월드를 액션 및 액션판타지의 축으로 삼아 IP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Shinhan

고객을 이롭게 하는 금융-시니어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편

번호표 뽑는 곳

만 60세 이상이면
창구에서도
송금 수수료
0원!

변함 없는 사랑으로 찾아주시는 시니어 고객님을 위해
신한은행은 창구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더 이로운 금융으로
신한은행이 또 한번 나아갑니다
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개인의 창구 터영 원화 송금 수수료에 한함.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0546-2호(2023.02.13~2024.02.13)

與 지지율 확보... ‘민생행보·극우제동’ 통해 반등 모색

국민의힘, 전대 컨벤션 효과 미미
당-정부 간 정책 엇박자 해소 주력
‘우파 통일’ 등 일부 극우발언 경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3·8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당과 정부 간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에 선 곳은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 요금 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에서 대학생들의 ‘1000원 아침밥’ 운영 상황을 직접 챙긴 데 이은 민생 행보다.

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를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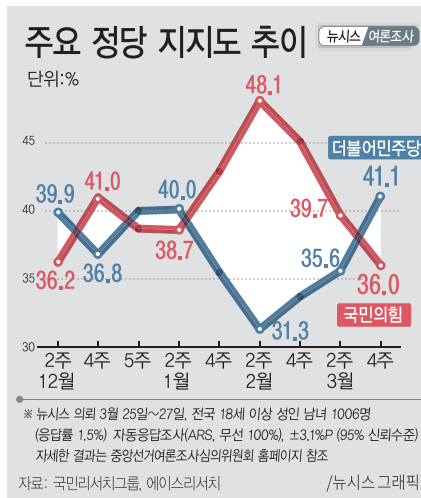
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가 넘거나, 쌀값이 평년과 비교해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농업 경쟁력 저하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

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간 협의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도 오는 31일 예정된 2분기 요금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당과 정부는 정책 엇박자로 인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협의도 예고했다. 당 정



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고, 정부와 ‘핫라인’으로 상정되는 정책 소통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당은 이준석계와 갈등으로 대표되는 내용을 수습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당 지지율에 영향 미치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셈이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인사 등용은 고려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 반대’, ‘전광환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발언 등 논란에 당 지도부가 경고장을 보낸 게 대표적이다.

결국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해소 차원에서 정책 역량은 강화하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당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조사해 29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6.0%, 더불어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2주 전 조사한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의 경우 5.5%포인트 오른 수치다. 29일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의당 2.6%, 지지 정당 없음은 18.1%로 나타났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野 ‘양특검’ 이견... 패스트트랙 지정 불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정의당 “대장동 특검 우선 논의”
민주당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했으나,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안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정의당을 설득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양특검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는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의미다. 정의당은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들이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지지부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임기 내에 완수는 하고 나갈 거라는 큰 시간표는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당도 그래서 양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특검 추천 방식 우려 해소를 위해 (50억 클럽 법안은) 정의당 법안으로 신

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안하고 양보했다”면서 “그럼 정의당이 응당 답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 이야기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정 및 심사권한은 법사위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적극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이) 무엇을 얻어왔다는 것인가”라며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다시 지켜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오전 간사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1000원 아침밥’ 예산 확대 환영”

김민석 의장 “지자체 참여 유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대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1000원 아침밥’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00원 아침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지방대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서 대학마다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0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지자체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도 보다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들도 참여를 한다면 1000원은 학생들, 기초지자체에서 500원, 광역지자체가 500~1000원, 중앙정부가 1500~2000원이든 이렇게 부담의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의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와 학교가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7억2800만원인 관련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5월 초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국무총리>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기간 7일→5일 단축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내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조치 이후에는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따뜻함은 나누고 에너지는 더하고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섬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무한 에너지,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나눌수록 커지는
공정에너지



수장 바뀐 금융지주, 당국 ‘상생금융 기조’ 발 맞춘다

하나銀,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인하
BNK금융, 스타트업 투자펀드 약속
KB금융, 가계대출금리 일제 인하
신한은행, 이자비 1000억 등 혜택

주요 금융지주의 새 수장들이 잇따라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함께 상생금융에 적극적이다.

NH농협금융, 신한금융, BNK금융, 우리금융 등 네 곳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등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선임된 만큼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잇따라 현장 방문해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달 들어 BNK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지난 24일 신한은행을 방문해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상생금융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잇따라 방문해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오는 30일 우리은행 방문을 끝으로 4대 시중은행 상생금융 현장 행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상생금융 관련 상품을 내놓은 상태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책을 내놨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8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을 때 이 원장은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독려했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임원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감면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도 취임 첫 일정으로 스타트업 지원센터 ‘썸(SUM) 인큐베이터’를 찾아 상생 금융의지를 드러냈다. 빈 회장은 스타트업 대표와 만나 부산·울산·경남 스타트업 투자 전용 펀드를 조성해 상생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각 0.3%p 인하 등을 제시했다.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낮춘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뀌주는 KB국민회

망대출도 지난 27일 출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자비용 1000억원과 금융비용 623억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및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0.4%p 내렸다. 또한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은 신규·대환·연기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 0.3%p와 0.4%p금리를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우리은행 방문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은행이 어떤 서민금융지원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이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29일 “주요 금융지주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사회공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화두는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상생금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비 회복에 작년 카드결제 일평균 3.1조

2022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외출 증가
전체 결제 중 비대면결제가 40%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규모가 하루평균 3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외출이 늘면서 대면결제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평균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2.7%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여파로 외출이 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된 영향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2020년 -3.8%에서 2022년 8.8%로 늘었다.

카드 종류를 보면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13.5% 늘어난 2조4530억원, 체크카드는 9.6% 증가한 6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 이용 규모도 15.1% 증가한 1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결제는 하루평균 1조1010억원으로 1년사이 8.8% 증가했다.

비대면결제는 온라인 쇼핑물 결제 등 비대면 거래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결제 등과 같이 단말기 접촉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현장결제를 포함한다. 전체 결제 중 비대면결제 비중은 40.1%를 차지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로 외출과 여행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면 결제도 크게 늘었다. 대면결제 이용규모는 일평균 1조645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다만 대면결제 시에도 실물카드보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는 하루 평균 229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46.9%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카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편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실물 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1조4160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동양생명, 최대 15% 저렴한 가성비 종신보험 출시

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간편심사만으로 편리하게 가입 가능

동양생명이 가성비와 편의성을 한번에 담은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동양생명은 저렴한 보험료로 간편가입이 가능한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기존의 50%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최대 15% 낮춰 설계했다. 낮은 비용으로 종신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

간편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이력 등 3가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불 유형으로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입하는 ‘평준 납입형’ 및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체감납입형’ 등 두가지로 구성했다.

보험금 수령 방식은 상품별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과 보험

계약 1년 후부터 매년 250만원씩 20년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입기간이 지난 경우금리 연동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해 사망보험금을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 등을 통해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10년 미만 예정이율은 연 3.25%다. 유지보너스도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13%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간편한 고지를 통해 종신보험의 혜택을 합리적인 보험료에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복잡한 청약절차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희망서포터즈’ 9명과 박청 KB손해보험 CPC디지털부문장 전무(두번째줄 왼쪽 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보, 희망서포터즈 17기 발대 교보생명, 국대 축구팀 공식 후원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이 소비자 패널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섰다. ◆고객 관점 개선사항 수집해 ‘신속 반영’

KB손해보험은 공식 고객패널인 ‘KB희망서포터즈’ 17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에 나선 ‘KB희망서포터즈’는 향후 약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17기로 선발한 패널 9명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한 패널과 함께 120여 명의 모바일 고객패널도 함께 운영한다.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상품, 제도, 서비스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아이디어 수집에 나섰다.

◆현장 체험활동 및 원주DB프로미 경기 관람

DB손해보험은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러 1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드림러(DREAMER)’는 20대와의 소통을 통해 상표가치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현직 실무자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참여

형 서포터즈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드림러 11기는 9명을 선발했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보험기초교육을 3일간 받았다. 이후 원주사업단과 원주보상센터를 방문해 업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앞으로 직무체험, 온라인 바이럴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활동 기획·시행, 보험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동행을 이어간다.

◆도시·산간 지역 및 취약계층 축구 꿈나무 육성

교보생명은 대한축구협회와 오는 2027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KFA-교보생명 공식파트너 계약 조인식’에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축구팀 공식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2027년까지 4년간 KFA와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유나이티드 월드컵에도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김정산 기자

삼성 코앞에 터 잡은 애플… 뉴진스 손잡고 국내시장 공략

국내 다섯번째 ‘강남 애플’ 개장
오프라인 스토어 서울에만 3개
연내 홍대에 6호점 오픈 전망도
日 도쿄, 英 런던보다 많은 수준

애플이 국내에 다섯 번째 애플스토어를 연다. 1년 사이에 서울에만 3개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개장하며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애플 강남’은 강남구 신논현역 5번·6번 출구 사이에 있는데, 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 서초 사옥과 근접한 거리에 있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29일 애플은 ‘애플 강남’을 미디어에 사전공개하며 31일 오후 5시 공식 개장을 예고했다. 강남점은 가로수길, 여의도, 명동, 잠실에 이은 국내 다섯 번째 애플 공식 매장으로, 단일 매장 규모로는 명동, 가로수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매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애플 텃밭’으로도 불리는 일본 도쿄와 동일한 매장 수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애플의 일본 시장 점유율



29일 사전 공개한 ‘애플 강남’ 전경

/허정윤 기자

은 48.8%인 반면 국내는 13%에 그쳤다. 이러한 규모 차이에도 애플은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애플 강남에 이어 6호점인 ‘애플 홍대’도 올해 안에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도쿄(5곳),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

드니(각 4곳)보다 많다. 애플의 한국 시장 점유율과 매출에 비해 오프라인 매장이 많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국내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강남은 젊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애플이 국내에서 저변 확대를 고려해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강남의 매장 전면은 전체 36m 폭에 높이 10m의 유리로 이뤄져있고, 44m 길이의 글라스 내벽이 설치돼있다. 애플 강남은 매장 외부에는 36m 폭의 10m 높이 전면 유리 ‘파사드(외벽)’를 설치했다. 파사드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그 모습과 색상이 변화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애플 강남에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 태국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15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애플 관계자는 “아이폰 14 시리즈를 비롯한 애플의 제품들을 고객이 직접 경험해보고 기능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 상륙한 ‘애플 페이’ 서비스와 같은 주요 리테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애플은 강남을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꾸미고, 고객과 보다 밀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데이 애플(Today at Apple)’ 세션을 예약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애플 강남점에서는 걸그룹 ‘뉴진스’를 앞세워 ‘투데이 애플’ 세션을 구

성했다. 애플 강남에서만 뉴진스의 음악을 공간 음향으로 즐길 수 있는 세션 ‘팝업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매시 정각에, 참가자들은 뉴진스의 히트 싱글 ‘OMG(Apple Music Edition)’을 특별한 청음 세션에서 경험할 수 있다. 뉴진스의 OMG(Apple Music Edition)은 애플 뮤직에서만 제공된다.

이 밖에도 애플리케이션 ‘개러지 밴드’를 사용해 주어진 템플릿으로 음악을 쉽게 작곡할 수 있는 세션도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애플 강남 홈페이지의 투데이 애플 세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패트릭 슈르프 애플 리테일 아시아 총괄은 “애플에게 있어 한국 고객층은 중요하다”라며 “특히 서울은 다양하고 에너지 넘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도시”라며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이어 “5년 전 첫 애플 스토어를 연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반응은 놀랍고 뜨거웠다”며 “애플은 한국에서의 오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 지진에 강한 강건제 솔루션 강화

SN·HSA 강재, Pos-H 형강 등
내진성능 확보 위해 개발 집중

세계 곳곳이 지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도 지진발생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경주서 규모 5.8, 2017년 11월 포항서 규모 5.4지진 이후 지난해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포스코는 지진피해에 따른 2차 참사를 막기위해 내진 관련 솔루션 개발과 적용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포스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축물 10채 중 8채 이상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가 본격화됐다. 신축 건물과 주요 공공시설에는 설계가 반영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내진은 지진에 견디는 것으로, 내진설계는 건축물이 지진에 버티며 붕괴하지 않도록 하여 인명의 손상을 막기 위한 목적의 구조설계를 말한다.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춰야 하며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연성’은 당기는 힘을 받아 파괴되기 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철강이 지닌 대표적인 특성이다. 반대로 부서지거나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 하는데 콘크리트가 대표적이다. 콘크리트에 철근을 함께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과 대만에서는 건축물,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강구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의도 파크원

현재 설계 기준상 항복비 0.85 이하면 내진용 강재로 분류된다. 항복비가 낮을수록 내진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는 지진 등의 충격으로 건축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붕괴되기 전까지 대피 등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teelNew)강은 항복비가 0.8인 내진강이다. SN재는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 건축물의 내진설계강화와 강재 용접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4년 제정된 SN 규격을 따르는 강재다.

포스코는 1995년 SN강재개발 상용화에 성공하고, 1999년 KS규격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의 SN강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고양 체육관 등 건축물부터 공공시설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HSA는 내진 성능을 가진 건축구조용 전용 강재로, 인장강도 600Mpa와 항복비 0.8을 보증하는 HSA600은 포스코만 생산 가능하다. 기존 건축구조용 일반강재보다 약 1.7배 강할뿐더러 중량은 30% 가벼워 초고층 건물에 알맞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에 적용됐다.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내진 강재의 품질확보 뿐만 아니라 강재를 접합하는 용접 기술과 건물의 연성능력을 위한 보기둥 접합부 등이 갖춰져야 한다.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 등급은 건축물이 휘거나 변형되는 중간변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보통모멘트·중간모멘트·특수모멘트로 분류하며, 특수모멘트로 갈수록 내진성능이 더 높을뿐더러 강해진 만큼 구조에 필요한 자재를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는 최근 세계 최대 사이즈의 특수모멘트 개발과 설계, 제작 기술을 제공하며 내진 강건제 솔루션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원가 절감과 구조물의 내진안전성을 위해 발주처나 건설사에서 내진접합부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의 Pos-H는 포스코의 내진강을 절단 후 용접해 만든 맞춤 형강이다. 건축물의 안전에 필요한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고, RH 형강 대비 15~20% 상당의 강재량 절감이 가능하다. Pos-H는 고양 데이터센터와 창원 스타필드 등에 적용됐다.

/양성운 기자 ysw@

“기술·인재 경쟁력 확보 위해 투자 지속”

(주)LG 정기 주주총회
구광모 “고객 중심 미래성장 노력”

LG가 ‘고객’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9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고객기반, 미래 기술, 인재와 같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 타워에서 열린 (주)LG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 테크(Clean Tech) 등 새로운 성장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10년, 15년 뒤를 대비한 미래 기반 확보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권봉석 (주)LG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대신했다.

구 회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더욱 단단히 만들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미래 고객 가치’에 지향점을 두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품질, 안전환경 등에 대한 관리와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사업의 기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위기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립한 LG만의 ESG 경영방침과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질없이 실행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와 공존하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정받는 LG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롯데, 신동빈·김교현 사내이사 재선임

제 47기 정기 주주총회
4개 모든 안건 원안대로 승인

롯데케미칼이 주주총회를 갖고 미래 신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공고히 했다.

29일 롯데케미칼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4개 안건이 상정됐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회장,

김교현 부회장,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신임 사내이사로 강종원 재무혁신 본부장(CFO)을 선임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법무법인 평안의 차경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보통주 1주당 배당금 3500원, 배당금 총액 1190억 원을 승인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이익 강화 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LG이노텍, 자율주행 필수 부품 공략 가속화

5G-V2X 통신 모듈 개발 성공
1세대보다 4배 빠른 150Mbps
2025년까지 상용화 목표

LG이노텍이 사물간(V2X) 원거리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대폭 개선하며 전장 부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LG이노텍은 5G-V2X 통신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V2X 통신 모듈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평가받는다.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만드는 데이터가 평균 4TB 수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빠른 속도를 가진 통신 모듈 수요도 늘고 있다.

이번 제품은 5G 차량 통신을 본격 지원하며 성능을 크게 높였다. 궤점집을 기반으로 RF회로 등을 결합한 모듈 형태, 차량 내부나 루프쪽 차량통신 기기에 장착해 차량과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인프라간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송



LG이노텍은 더 작고 빠른 2세대 5G-V2X 통신 모듈을 개발했다.

수신할 수 있다. 다운로드 속도가 150Mbps로 2019년 세계 최초로 출시했던 1세대(35Mbps)보다 4배 이상 빠르다.

LG이노텍은 직사광선·발열 등으로 인한 고주파 5G 신호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90℃의 고온에서도 온전한 품질을 유지하는 5G 차량통신을

제공한다. 이 같은 내구성 강화로 1~1.5km에 달하는 원거리 차량·사물간 통신 커버리지도 5G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크기도 종전보다 20% 작아졌다. 신용카드 절반 크기인 가로와 세로 46mm, 50mm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1세대(480여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800

여개 부품을 탑재했다.

국가와 지형, 차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해 호환성도 높다.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3GPP)의 최신 5G 표준을 적용했다.

LG이노텍은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전장 부품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은 “2세대 ‘5G-V2X 통신모듈’은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LG이노텍은 ‘미래차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차량 전장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넥슨, 변조 핵 논란 사과… “클라이언트 보안 강화할 것”

메이플스토리 CRC 기능 체크 안 해
예전부터 있던 문제… 사용자 신뢰 ↓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변조 핵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클라이언트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달 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내서 벌어진 클라이언트 변조 핵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클라이언트는 온라인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는 방식의 게임 핵을 통해 보스 몬스터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처치하고 게임 내 비싸게 거래되는 아이템을 무더기로 얻은 정황이 포착

됐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런 핵은 수년 전부터 암암리에 이용됐다”며 “이는 CRC기능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RC기능은 데이터가 손실, 변경없이 전송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담당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거듭 사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넥슨은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인 CRC체크 방식을 개선했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는 영구정지 조치를 한다고 전했다.

또 운영 정책 개정안을 발표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 수준을 올릴 방침이다.

지난 17일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게임에서 중요한 공정성에 대한 환경을 구

축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를 확인할 때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 선별 체크 했지만 해당 허점을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앞서 논란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클라이언트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채증하고 있고 현재 파악된 모든 상황에 대해 저작권, 형법,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넥슨은 지난 19일 핵사용 방식을 이용하는 계정 2개를 영구 제한했고 지난 24일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계정 670개를 제한한 바 있다.

또 넥슨은 이달 말 운영 정책 개정안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제재 일수와 강도를 상향해 제재 수준

을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넥슨의 늦깎이 대처에 대해 지적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수년전부터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다수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체제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떨어졌다”, “이번 논란에 대한 대안도 특별히 구체적이지 않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메이플스토리는 20년 가까이 된 게임이다 보니 보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용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BM(수익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보안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빛나 기자

포스코, PLA 리사이클링 사업 나서

콜비온·이슬산업과 기술 개발
사용량 비 재활용 산업 전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생분해성 바이오오픈라스틱(이하 PLA)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PLA제품 사용량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리사이클링 관련 산업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전략적 선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네덜란드 토탈에너지스 콜비온, 국내 기업인 이슬산업과 PLA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토탈에너지스 콜비온은 PLA 분야 글로벌 2대 제조사 중 한 곳이며, 이슬산업은 국내 PLA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탈에너지

스 콜비온은 PLA 생산 노하우를 활용해 리사이클링 플랜트 구축을 위한 기술 이전을 돕고, 이슬산업은 폐기된 PLA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금 지원과 함께 전체적인 기획과 관리를 맡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오픈라스틱 시장은 2020년 기준 104억6000만달러(약 12조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279억1000만달러(약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바이오오픈플라스틱인 PLA의 경우 2020년 19억 2000만달러(약 2조원)에서 2025년에는 56억 5000만달러(약 6조원)로 전망되며 전체 바이오오픈플라스틱 연평균 성장률보다 2.4%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성운 기자 ysw@

동국제강,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구축

포항공장 지붕 5만평에 125억 투자

동국제강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설비를 도입한다.

동국제강은 총 125억원을 투자해 포항공장 3개동 지붕 5만평에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설비는 10MW급 자가발전설비로 연간 약 13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동국제강은 매해 전기료 약 15억원을 절감하고, 연 6000톤의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태양광 발전 구조물에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GIX를 적용했다. 동국제강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용으로 개발한 친환경 철강 제품이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동국제강 탄소배출량은 철강업종 전체의 2%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기존 대비 10%의 탄소배출 추가 절감을 목표로 친환경 지속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당진공장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3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온 바 있다.

/양성운 기자

컴투스

글로벌 시장서 ‘크로니클’ 성과

최근 ‘크로니클’이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컴투스의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로니클은 글로벌 시장 및 스팀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 현재 일매출 10억 원을 기록 중이다. 또 이 게임은 태국,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에서 스팀 동접자 수 2만 5천 명 이상을 유지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컴투스가 신작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의 초기 흥행과 출시 예정 신작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고 29일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햏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햏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SVB·CS 등 ‘뱅크데믹’ 여파에 국채자금 쓸림현상 극대화 전망

위험회피 심리에 안전자산 선호
“코코본드 중심 채권시장 불안
韓 크레딧 투자여건 간접적 수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스위스(CS) 코코본드(AT1) 채권 상각, 도이체뱅크 유동성 위기 등이 어진 연쇄 위기로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가운데,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시장 불안이 국채 자금 쓸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AA-등급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는 77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올해 초 150bp 초반 수준에서 이달 초 67bp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으나,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SVB 파산 등 채권시장 투심이 위축되자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다. 통상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높아져 기관투

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은행채 등 금융채의 발행액이 줄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은행채와 기타금융채의 발행액은 총합 14조5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5조5200억원, 2월 16조6830억원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단, 전문가들은 뱅크데믹 등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코코본드 채권 상각 기준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코본드 상각의 세부조건은 각 금융기관이 정하는데 CS와 UBS의 AT1(코코본드)은 100% 손실로 설정됐다”면서 “이 같은 조건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국내은행의 위험성도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안전자산 선호를 좀 더 오래 유지시킴과 동시에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코코본드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불안은 국채로의 자금 쓸림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국내 채권금리를 안정시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해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기관의 이벤트는 자산운용 실패 등 기업 고유의 위험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면서 “외려 전반적인 국내 크레딧 투자여건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수준을 하회하는 국채금리 레벨은 국채 대비 크레딧 채권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초 연 3.8% 수준에서 29일 기준 연 3.2% 선까지 하락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오른쪽)와 박광빈 엔츠 대표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 탄소배출량 저감 나서

엔츠와 진단·감축 서비스 제공 MOU

SK에코플랜트는 탄소회계 솔루션 개발 기업인 엔츠(AENTS)와 ‘탄소배출량 진단 및 감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엔츠가 보유한 탄소회계 기반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 고도화에 착수한다. RE100 로드맵 설정, 이행방안별 비용 분석, 실적 관리와 같은 세부기능을 추가한다.

SK에코플랜트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공동 기획과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의 우수한 탄소감축 솔루션을 발굴해 플랫폼에 등록 및 중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이 시나리오별 탄소 감축 예상치를 사전에 확인해 직접 해결 방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종합솔루션 기능

을 제작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나 법령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별 표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필요한 기업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엔츠는 서비스의 기획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운영·유지보수를 맡는다.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방대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축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탄소회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기업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CEO 공백’ KT, 시총 2조 증발… 목표주가 ↓

KT 주가 2.66% 하락해 2만9250원
올 SKT·LGU+ 상승세, KT 13% 하락

KT의 최고경영자(CEO) 공백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도 선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는 전 거래일 대비 800원(2.66%) 내린 2만9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13%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3만6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서 3만원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시가총액도 1월 중 10조원에 육박했지만, 두 달새 2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다른 통신주인 SK텔레콤은 전년 말 대비 2.85% 상승, LG유플러스는 1.65% 하락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KT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최근 구현모 전 대표이사, 윤경립 차



/뉴시스

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사퇴 결정이 이어지면서 KT를 향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이사회가 차기 CEO로 낙점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정부에서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하면서 지난달 스스로 물러났다.

이어 차기 CEO에 윤 대표 후보가 올랐지만 지난 27일 끝내 사퇴를 결정했다. 여기에 전날 사외이사 2명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KT의 리더십 공백화

사태를 두고 향후 전략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목표주가를 낮추기도 했다. 이달에만 NH투자증권 5만원→3만8000원, 대신증권 5만2000원→4만4000원, 흥국증권 5만원→4만원 등 주요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두 자릿수 내렸다.

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CEO의 윤곽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전략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당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당국의 다양한 압력 발생 가능성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 CEO가 선임되고 이후 전략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쌍용건설, 두바이서 1513억 공사 수주

키파프 플롯6에 ‘파크뷰 레지던스’
지상 44층 465가구 규모, 통유리 마감

쌍용건설이 두바이에서 럭셔리 레지던스 수주 소식을 전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두바이 키파프(Ki faf) 플롯(Plot)6 지역에서 약 1513억

원(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파크뷰 레지던스(Park Views Residences)’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파크뷰 레지던스는 지상 44층 1개동 465가구 규모로, 자빌 파크(Zabeel Park) 인근 두바이 최고 중심 주거지인 키파트 지역에 들어설 최고급 레지던

스로 탄생하게 된다.

건물 4각 모서리 부분들이 고급스런 통유리로 마감된 외관이 특징이며, 단지 내 주거시설 외에도 고품격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류됐던 고급건축과 SOC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IBK투자증권, 서정학 신임대표이사 선임

“국민·中企에 필요한 증권사 거듭”

IBK투자증권이 29일 서울 여의도 삼덕빌딩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정학(사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서정학 신임 대표이사는 1963년생으로 경성고와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기업은행 싱가포르·뉴욕지점 등에 근무했으며, IB지원부장, 기술금융부장, IT그룹장,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C



IB 그룹장을 거쳐 2021년부터 IBK저축은행장을 역임해왔다.

서정학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국민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IBK금융그룹 네트워크에 투자증권만의 전문역량을 더해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DB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광복석

“구조화금융 등 IB 분야 전문가”

DB금융투자는 29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광복석(사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광복석 사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투자신탁을 거쳐 2005년 DB금융투자에서 합류했다. 2011년 프로젝트금융 본부장을 거쳐 2019년 PF사업부 부사장, 2022년 PF사업부 겸 IB사업부 총



괄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되고 경영총괄사장을 맡아왔다.

DB금융투자는 “광복석 대표이사 사장은 구조화금융 등 IB분야의 전문가로 DB금융투자가 관련 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SK(주) “2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안정 운영 최우선”

SK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장동현 “주주환원 정책 실천 옮겨”
주주가치 도움 되는 방향으로 고민
추가 투자 리스크 확보 시기 조정 중

SK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 SK(주)가 약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소각한다. 또 배당일 관련 정관도 새롭게 설정하며 기업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장동현 SK(주) 부회장은 29일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제32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SK(주)가 지난해 사들인 자기주식 1.3%(보통주 95만 1000주·1997억6300만원 규모)를 모두 소각한다”며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부 주주가 회사가 보유한



SK 주주총회.

/SK 제공

자사주를 더 많이 소각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성형 SK(주) 사장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 후 효과가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회사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자사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소각 예정일은 주총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배당일 관련해서 배당액이 확

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안건 ▲재무제표 승인 ▲장동현 대표이사 부회장·이성형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 외국 변호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SK(주)는 올해 주요 사업성장 전략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장 부회장은 “높은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전문회사로서 안정적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변화와 위기 속에서 발생할 기회를 적시에 선점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주주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투자를 더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장 부회장은 “그간 투자한 사업 외 추가 투자를 위한 리스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시기도 조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 부회장은 SK그룹 차원에서 속력을 내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도 언급하며 차세대 선제 투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현재 SK(주)가 보유한 SK 멤버사 포트폴리오의 넷어셋밸류(N AV) 하락 발생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SK(주)기업가치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자기주식 상여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은 현금에 더해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책정된 상여의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는 것”이라며 “회사 자산(현금)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는 향후 첨단소재 투자 부문에서 ▲반도체 소재 분야를 확장하고 ▲배터리 소재는 리튬메탈 배터리 ▲탄소나노튜브 등 차세대 소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어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화합물 반도체 사업 확장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 배출 축소와 제거 관련 사업 기회도 발굴할 예정이다. 디지털 투자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웹3 등에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포스코 베테랑 직원들, 中企에 맞춤형 컨설팅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행사 개최
올해 10개 기업 연말까지 개선 실시

포스코가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포스코는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프로그램인 ‘동반성장지원단’의 2023년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9일 밝혔다.

포항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김현태 스타머트리얼 대표, 김재국 한국엔씨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작년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컨설팅 계획을 공유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8명의 포스코 리더급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개발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출범한 이래 지난 2년간 총 49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수행한 과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안전·에너지 등 ESG 현안 해결 ▲설비·공정 개선 ▲기술개발·혁신 등 총 4개 부문에서 총 176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정밀진단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과제를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각 계열사도 회사별로 특

화된 전문성을 살려 동반성장지원단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네트워크와 마케팅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참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반성장지원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이 당면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성과공유제 확대, 스마트 팩토리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지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3조 규모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공급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한울 3·4호기에는 1400MW급 한국 표준형 모델인 APR1400이 적용된다. APR1400은 2019년 준공한 새울 1호기를 시작으로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새울 3·4호기에 적용되면서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운영 과정에서 품질기준을 높이

고 설계를 개선해 안전성이 강화됐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을 위해 국내 460여개 원전 협력사와 힘을 모은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판 제작, 열처리 등의 업무를 국내 협력사에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고, 연말까지 2100억원 규모의 추가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물론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원전 협력사 등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해운·자동차협회 상생협력 강화 맞손

해운업계 車 적재공간 제공 노력
자동차업계 안정적 수출량 공급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운협회-자동차협회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MOU는 29일 용산 노보텔 엠베서더 3층 신라룸에서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양 단체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여유 선포 및 시장정보 등을 공유하고 반기별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서울모빌리티쇼 공식 메타버스 앱.

“메타버스서 서울모빌리티쇼 체험해요” KG모빌리티·벤츠 등 20여개社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3 서울모빌리티쇼’를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31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를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KG모빌리티, 마스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 부품·용품 업체 20여개사가 참여해 3D 가상 공간에 부스를 꾸린다.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자동차의 모델, 라인업, 트림, 외장 및 내장 디자인 등을 3D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 컨피구레이터(Configurator)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티켓, 시승예약, 현장 라이브 및 VOD, 전시장 360 가상현실(VR), 온·오프라인 이벤트, 참여업체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

이 미래 모빌리티의 생태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메타버스 앱을 통해 모바일 티켓 구입부터 현장 라이브, 3D 쇼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관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Sustainable·Connected·Mobility(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를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는 3월 31일(금)부터 4월 9일(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된다. 총 전시규모는 5만3541㎡로 지난 행사(2만6310㎡)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 세계 10개국 16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전기이륜차와 UAM 등 이동수단을 활용한 콘텐츠와 미래첨단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 국제전시회로 1995년 이래 2년마다 열린다. 그동안 서울모터쇼로 불린 이 행사는 미래차와 로봇, 통합이동서비스(MaaS) 등 모빌리티가 점차 확대해나가는 점을 고려해 2021년 서울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꿨다. /양성운 기자

中企 80%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수출 증가 기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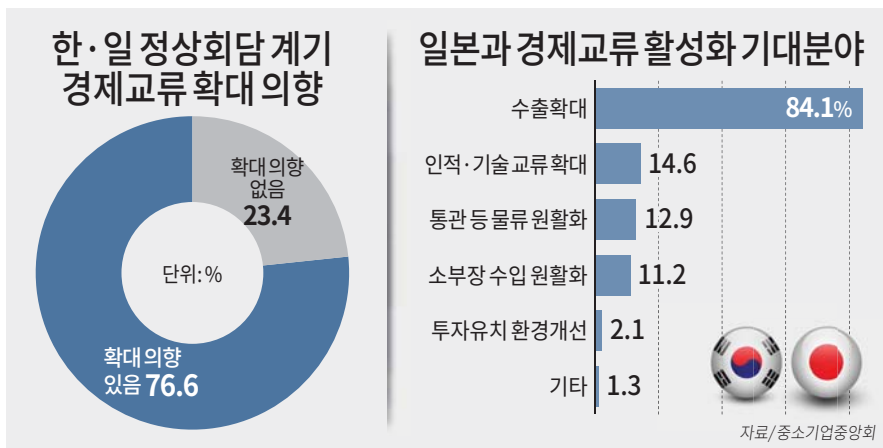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304개社 설문
‘경제교류 확대 의향 있다’ 76.6%
가장 기대 분야 ‘수출확대’ 84.1%
日 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절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도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전



체의 76.6%를 차지했다.

경제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로는 ‘수출확대’가 84.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적·기술교류 확대(14.6%) ▲통관 등 물류 원활화(12.9%) ▲소재·부품·장비 수입 원활화(11.2%) 등도 뒤를 이었다.

한·일 경제교류 확대 시 협력 또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일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6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외에 ‘업종별 교류 확대’(34.5%), ‘원천기술 협력’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이 각각 8.9% 등의 응답도 있었다.

실제 지난 2019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규제 조치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감소(21.4%) ▲통관 지연 등 물류차질(9.8%) ▲소재·부품·장비 수급 차질(7.0%) ▲기술·인적교류 축소(6.8%) 등이 있었다.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일본 시장 매력도 저하’가 39.4%를 차지했다. 이외에 ▲원자재 등 국산화 완료(19.7%) ▲통관절차 등 복잡(7.0%) ▲업무 디지털화 미비(4.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거래가 많지 않음, 가격 경쟁력 저하, 현행 유지 등이었다.

한편 일본과의 교류 분야는 수출이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16.8%에 그쳤다.

2023년 현재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분야는 ▲소재·부품(34.5%) ▲기계장비(29.2%) ▲문구·생활용품(16.4%) 등이었다.

수입 분야는 ▲소재·부품(56.9%) ▲기계장비(21.6%) ▲문구·생활용품(9.8%)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해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높다”면서 “한국의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을 필요로 하고 한국에도 ICT 등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한·일 양국 기업간에 활발한 기술·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 노란우산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 7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복지사업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포럼’ 개최

고객 관리·수익률 제고 등 논의
가입자 167만명… 대표 사회안전망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자 대표 플랫폼인 ‘노란우산’의 역할 확대 및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노란우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노란우산 현황 진단 ▲가입률 제고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성숙기 노란우산의 지향점 등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노란우산 고객관리, 수익률 제고, 복지사업 내실화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재적가입 167만명을 보유한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이바지해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란우산은 가입자 167만명, 부금 22조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

다”며 “개정법을 바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복지·후생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은 “복지서비스 확대, 고객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중기중앙회의 의지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포럼은 노란우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숙기 노란우산 지향점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며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한진, 해외직구 플랫폼 ‘훗타운’ 출시

초국경 택배시장 선점
업계 최초 글로벌 C2C

한진이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맞춰 초국경 택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글로벌 C2C 해외직구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관계 중심형 플랫폼인 ‘훗타운(HOOTTOWN)’을 선보였다.

29일 한진에 따르면 훗타운은 글로벌 이커머스 관련 역량 강화 일환으로 ‘이하넥스’의 해외상품 배송대행 서비스에 개인 간 상품거래 및 정보교류의 기능을 통합했다.

한진은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배송대행 서비스인 ‘이하넥스’를 2011년 론칭했고, 지난 2017년에는 해외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인 ‘이하넥스몰’까지 선보이며 해외직구족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훗타운은 개인 간 물건 구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취요’, 상품판매를 등록할 수 있는 ‘팔아요’, 훗타운 내 실시간 커뮤니티 기능인 ‘만나요’로 구성됐다.

훗타운에 가입한 사용자(타운너) 중심의 각종 편의성도 확보했다.

배송하는 과정에 한진이 ‘로지테인먼트(Logistics + Entertainment)’ 일환으로 제작한 모바일 물류게임 캐릭터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훗타운은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고 원화, 달러, 엔화로 결제가 가능해 타운너는 상품이 출고된 이후 원하는 통화로 가입 시 등록한 개인 계좌에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홍콩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물류 거점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훗타운의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향후 서비스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4월10일에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한다.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가상 레미콘 생산 교육 진행

계량·믹싱·출하 제어판넬 등 구성
국내 최초 구축… 안전한 실습 가능

유진기업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 레미콘 생산 교육을 진행한다.

29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 설치된 레미콘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동일 모델의 레미콘 계량·믹싱·출하 제어판넬과 제어PC 및 각종 모니터링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유진기업이 국내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지난 1월 생산 시뮬레이션 장치의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실제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레미콘 생산 시뮬레이션 교육은 레미콘 생산 설비를 처음 접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생산장치 및 매뉴얼 교육 ▲

개인 맞춤형 실습 ▲그룹 토의 ▲종합 생산 시뮬레이션 장치 테스트 순서로 구성돼 있다.

직원들은 레미콘 원자재 계량 및 이송 설정, 기계장치의 기동과 기동의 모니터링, 이상 발생 시 대응 등을 위험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된다.

레미콘 제조 실무는 별도로 교육과정 없이 신규 입사자가 바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생산 오류 및 품질 불량 발생 위험이 있다. 레미콘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생산 실무 숙지를 함으로써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레미콘 생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일본법인, ISO 인증 획득

품질·환경·안전보건 3개 분야
日 진출 韓 물류기업 중 최초

CJ대한통운 일본법인이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 3개 분야에서 국제표준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물류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일본법인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물류기업 중 최초로다.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수여

하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과 관련해 국제규격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한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CJ대한통운측은 특히 이번 인증으로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향후 물류사업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CJ대한통운 일본법인은 지속적인 물류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

업체)’ 인증도 획득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이봉경 일본법인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물류기업 최초로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까지 3개 인증을 한번에 받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1972년 도쿄 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처음 일본시장에 진출한 뒤 2006년에 일본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해상 및 항공 포워딩, 프로젝트물류, 계약물류, 초국경 택배(Cross Border E-commerce) 등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물류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DAVID HOCKNEY

& BRITISH POP ART



1960s Swinging London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아트

2023. 3. 23 ~
2023. 7. 2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전남도, 60억 들여 ‘핫플’ 만든다… 노후 관광지 4곳 새단장

장흥 우산도, 무안 회산백련지
화순온천, 곡성 도림사 등 선정
신규 콘텐츠 개발·시설 정비 박차

전라남도는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장흥 정남진 우산도, 무안 회산백련지, 화순온천, 곡성 도림사 관광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개발된 지 10년 이상 된 관광지 등의 시설과 엠지(MZ)세대에게 소외받는 콘텐츠, 부족한 관광약자 시설 등을 보강해 관광객에게 안전과 볼거리를 제공, 찾고 싶은 관광지로 새단장 하는 사업이다.

장흥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는 2천 700억 원의 복합리조트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정남진 전망대 콘텐츠 보강, 주변 공원 시설물 정비 및 안내판 교체, 감성방안 예술 전시시설 증축 등을 추진한다.

무안 회산백련지 관광지는 기존 노



광장노후시설 개선과 탐방로 개보수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한 '해남 땅끝 관광지' 전경. /뉴시스

후 카라반을 교체·정비하고, 최근 가족 관광객이 선호하는 방갈로를 신규 설치한다. 동양 최대 백련 서식지를 활용해 체험·숙박 등을 즐기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계획이다.

화순온천 관광지는 온천을 중심으

로 1984년 지정됐다. 금호화소리조트, 아쿠아나 시설 등을 제외하면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가로등 교체 및 편의시설 정비, 족구장 설치, 쉼터 등을 조성한다. 또 민자 투자유치를 통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SF로봇

수련센터 등 콘텐츠도 보강할 계획이다.

곡성 도림사 관광지는 광주와 인접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림사계곡, 섬진강 기차마을 등과 연계해 가족단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노후 캠핑장, 카라반, 야외바비큐장 등을 정비해 생태·체험 콘텐츠를 갖춘 관광지로 재생시킬 계획이다.

전남도는 관광단지 6개소, 관광지 27개소, 관광특구 2개소 등 35개소 중 20년 이상 된 관광지 18개소가 있어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비를 지난해보다(37억 원)보다 62% 많은 60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강진 대구요, 해남 땅끝 등 10개 관광지에 183억 원을 들여 노후 관광콘텐츠 및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황매산철쭉제 4년만에 막 올라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 산청 황매산에서 핑크빛 향연 '산청황매산철쭉제'가 4년 만에 막이 오른다.

29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축제 위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정기총회에서 '제39회 산청황매산철쭉제'를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철쭉 풍년 제례를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행사, 농특산물 판매장터, 향토음식점 등 철쭉제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철쭉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구미시

‘조국 근대화 첫 여정’ 기획전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하 역사자료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 60주년이 되는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1963, 조국 근대화를 위한 첫 걸음>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가진다.

이번 전시 1963년은 올해와 같은 계묘년이자 제3공화국이 수립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해로 군정(軍政)에서 민정(民政) 이양이라는 큰 정치적 대변혁과 사회, 경제, 문화 등 일련의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며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와 함께 당시 생산된 박정희 대통령 유품과 사진을 전시해 시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진주시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 협약

경남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에서 진주경찰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안전사각지대 발굴과 환경개선 등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사업 대상지는 경상국립대학교 정문 맞은편 원로 밀집지역으로 야간에 어둡고 위험한 거리를 밝게 조성하고 가시킴 설치 등으로 범죄발생률을 줄여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해남, 군민 스포츠 생활지원 체육시설 3개소 확충 속도

‘제2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2024년 12월 준공 목표

전남 해남군이 군민 스포츠 생활지원과 전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383억 원을 투입해 제2스포츠타운을 비롯해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등 3개소의 체육시설을 추진한다. 삼산면 평화리 일원에 8.8ha 규모로 조성되는 제2스포츠타운은 도비 43억원 등 181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2스포츠타운은 정식규격의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해남군은 우של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늘면서 제2스포츠타운



해남 우של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제2스포츠타운은 숙박과 음식점이 밀집된 삼산면 인근에 조성되면서 대행사 및 인근 숙박시설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동절기에 상권활성화는 물론 미남축제 개최와 연계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합체육문화센터는 해남읍 신안리 부지 일원에 138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40㎡로 지어진다. /해남(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中企 대출이자 반으로 부담 줄여

금리 대폭 감면 지원 ‘행복자금’

경북도내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됐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에서 확보한 500억원을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000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원(도, 은행 각 300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었다.

도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해 사업을 확대했



경북도청.

다. 이로써 행복자금 가운데 도 재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융자규모는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었다.

협약에 따른 감면금리 적용으로 기업에게는 최초 산출금리의 50% 이하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과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과 경영애로 기업, 기업은행은 수출·일자리창출·고용예정 기업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지하2층, 지상8층 300병상 규모

울산시는 29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김두겸 울산시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11번째로 지어지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총공사비 2277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4만 7962㎡, 지하2층, 지상8층의 3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18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재활전문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와 2개 연구소(직업병연구소, 재활보조기 연구소) 등을 갖추고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환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산업현장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해 일·가정 적응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진료, 응급의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1.2억 투입

망정동 48번지 인근 부지 확정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이 사업부지 확정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총사업비 1200억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대공연장, 소공연장, 리허설실, 대기실 등 최신 공연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22일 제1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 회의를 개최하여 건립 후보지 6개소 중 4개소로 축소했고, 3월 28일 제2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우로지 생태공원

이 위치한 망정동 48번지 인근 36650㎡ 부지를 최종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로지 남측, 한의마을 건너편 등 총 4개 후보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로지생태공원 후보지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건립부지의 32%가 사유지라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경제성과 중심성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leesh0412@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확산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음악 ▲국악 ▲연극 ▲다원 8개 분야로 팀별 최소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10개팀 내외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18m 벨리곰… 5m 꽃동산… “인증샷 성지로 봄소풍 가요”

유통가, 엔데믹에 행사·축제 다채
롯데홈쇼핑 롯데월드타워 광장에
작년보다 더 커진 ‘어메이징 벨리곰’

롯데백 노트리월드 플래그십 오픈
신세계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
튤립·수선화 등 활용 ‘봄의대화’

봄꽃이 만개하고 나들이 하기 좋은 온화한 기운이 계속되면서 유통가도 나들이객 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3, 4월 방역규제 해제가 시작되면서 유통가는 야외 초대형 구조물 전시로 엔데믹(풍토화) 초입 흥행몰이를 했다. 올해는 장기화한 경기 불황에 적응한 고객들이 팬데믹의 끝을 만끽하고자 나들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행사를 준비한 유통기업들은 전년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봄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롯데는 지난해 초대형 조형물 전시 붐을 일으킨 만큼 대대적인 야외 행사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시가 불러온 봄’을 찾은 시민들이 조성된 꽃동산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4월4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를 준비했다. 롯데홈쇼핑은 4월 1일부터 서울 잠실과 광화문, 동대문 등 서울 곳곳에서 벨리곰 공공전시를 진행한다. 벨리곰은 지난해 4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 광장에 높이 15m에 달하는 초대형 조형물로 초대형 캐릭터 전시 붐을 일으킨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메인광장에서 초대형 공공전시 ‘어메이징 벨리곰 해피

B-DAY’를 열고 지난해보다 더 커진 18m 규모의 벨리곰 조형물을 전시한다. 댄스파티, 깜짝 카메라 등 즐길거리는 물론, 전년보다 4배 더 커진 팝업스토어까지 함께 열린다.

공공전시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대표 문화관광축제 ‘서울페스타 2023’에서 진

행한다.

롯데백화점도 31일 잠실 롯데월드몰 5층과 6층에 약 1124㎡(약 340평) 규모의 ‘노티드 월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한다. ‘노티드’는 단순 디지털 브랜드를 넘어 2030세대에게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진행한 팝업에는 2주간 하루 평균 10만명의 고객들이 방문했다.

팝업스토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컵케이크와 40여 종의 인기 굿즈를 선보이며 복권 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신세계도 오프라인 채널 곳곳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다음달 4일까지 별마당 도서관에서 ‘시가 불러온 봄’ 행사를 진행한다. 도서관 중앙에 거대한 꽃동산 ‘봄의 대화’를 설치해 봄 분위기를 살렸다. 봄의 대화는 플랜트 디자인 스튜디오 ‘마초의사춘기’가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그랑디바 등 봄꽃을 활용해 꾸민 5m 대형 꽃동산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라이프스타일 클래스가 열린다. 손유리 신경과 전문의, 박

준 시인이 삶의 행복을 키워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전수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까사와 함께 5월 14일까지 경기 여주시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야외에서 까사미아 굿홈 캠페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영국 출신 현대 예술가 리차드 우즈의 대표작인 ‘홀리데이 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까사미아 서래마을점에서 진행 중인 빅가든 전시회의 작품 10여점을 옮겨와 전시하고 대형 거울 소재의 벤치를 설치해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꾸몄다. 리차드 우즈의 예술관을 담아 만든 굿즈와 까사미아의 인테리어 소품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휠라코리아는 4월 7~8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테니스 축제 ‘2023 화이트오픈 서울(2023 WHITE OPEN SEOUL)’을 개최한다. 휠라는 이번 행사를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한 테니스 마니아 전용 ‘화이트 아레나’와, 광화문 광장을 찾은 이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화이트 가든’ 두 가지 테마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전면에 MZ 배치… 롯데홈쇼핑, 모델·인플루언서 키운다

임직원 사내모델 10명 뽑아 화보촬영
1년간 홍보사진·브이로그·숏폼 활동

가상인간 ‘루시’ 마케팅지원 4명 선발
민지네 반상회 운영 할 직원도 뽑아

“대리님, 이쪽 보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 스튜디오에서 지난 13일 이색 화보 촬영 행사가 열렸다.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사내모델로 선발된 10명이 화보의 주인공이다.

롯데홈쇼핑은 회사의 주축이 될 2030 MZ세대 직원을 전면에 배치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내모델들의 이색 화보 촬영도 그 일환이다.

롯데홈쇼핑이 사내 모델을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사내모델 10명이 벨리곰을 안고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으로 지원 및 추천을 받아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내부 평가를 통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기준으로 남녀 5명씩 총 10명의 직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사내모델들은 1년간 언론 홍보용 사진촬영을 비롯해 브이로그, 숏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홍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장은

“고객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외홍보, 마케팅 활동에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재능과 개성을 갖춘 직원들의 기업 홍보 활동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 모델 외 신사업 마케팅을 위해

선발한 직원들도 있다.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의 사내 팬클럽 ‘루시 서포터즈’와 ‘민지(MZ)네 반상회’가 대표적이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NS 구독자 7500명의 셀럽, 여행 크리에이터, 룩북 모델 등 ‘부캐’ 활동이 활발한 임직원 4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루시’ 관련 콘텐츠 기획,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MZ세대 전용 상품 개발을 위한 신상품 품평회 ‘민지(MZ)네 반상회’도 선발한 직원들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최신 트렌드에 밝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직원 5명이 임직원 고객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매월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상품 제안, 마케팅 전략 등을 협의하며 올해 상반기 내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서현 기자



유네스코와 함께 ‘소녀교육 2차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감사장을 받고 있는 민희경(오른쪽) CJ제일제당 사회공헌추진단장. /CJ

CJ, 베트남 소수민족 지원 교육·여성 고용 확대 앞장

CJ가 베트남 소수민족의 교육 접근성과 여성 고용 기회 확대에 앞장선다. CJ는 양질의 교육에서 소외돼 있는 베트남 소수민족을 위한 ‘베트남 소녀교육 2차 프로젝트’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님투언·까오방·꽌똌 성 학생들의 자신감 증진,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2년 동안 운영된다.

‘CJ-유네스코 소녀교육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 중 25만 달러(약 3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정책 책임자 및 정책 입안자 대상으로 범국가적 수준의 캠페인을 펼쳐 각 학교 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협약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앞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펼친 1차 프로젝트는 베트남 현지에서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하고 여성 교육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CJ는 이러한 공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전날 출범식에서 베트남 교육부 교원정책국과 민족위원회,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각각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신원선 기자

쿠팡 ‘월 매출 2억’ 여성 창업가 육성

정미선 ㈜서버브 대표
‘이국주 버너’로 매출 상승세

쿠팡은 쿠팡을 통해 성공가도를 달리는 여성 창업가 정미선 ㈜서버브 대표의 일화를 29일 소개했다.

㈜서버브는 블랙버너 브랜드로 인테리어와 캠핑 등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회사다. ‘이국주 버너’로 불리는 특별한 가스버너가 주력 상품이다. 서버브의 가스버너는 일반 가스버너와 달리 블랙 장난감 모양의 디자인에 톡톡 튀는 색감을 입혔다. 국내에서 일반 가스 버너가 주로 지

가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르게 품질과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블랙버너를 고안해 월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정미선 ㈜서버브 대표는 과거 경북 포항 대기업에서 일하던 재원이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었다. 쌍둥이를 육아하며 쿠팡을 통해 고추장, 굴, 장난감 등을 판매하며 소소한 돈벌이를 하다가 2021년 남편이 혈액암에 걸린 것을 계기로 부업으로 하던 사업을 본격화했다. 정 대표는 마켓플레이스뿐 아니라 제트배송과 로켓배송에 상품을 등록하고, 트러스트담당자에게 전문 컨설팅도 받았다.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오늘부터 ‘이너웨어 페스티벌’

신영와코루와 ‘와우브라’ 기획 등
30개 브랜드 상품 1500여종 할인

홈플러스가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너웨어 페스티벌’을 열고 30개 브랜드 상품 150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 상반기 이너웨어 페스티벌은 행사 상품 2장 이상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에서 기능성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신영와코루와 단독으로 기획한 ‘와우브라’를 선보인다.

홈플러스 고객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너웨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과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컴포트핏’ 상품을 비롯한 기능성 속옷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쿨 기능성 소재와 UV차단 기능성원단을 활용한 골프 이너웨어와 프리터치 노와이어 심리스 브라 등 다양한 기능성 이너웨어를 확보했다.

신영와코루와 기획한 와우브라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리스 노라인으로 개발해 편안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쾌적함을 살린 쿨 기능성 이너웨어 ‘쿨 플러스’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나들이 가볍게 떠나요... 외식업, 벚꽃 맞이 피크닉 메뉴 ‘붓물’

스쿨푸드, 일본식 ‘타마고산도’
씨브웨이, ‘2023 SS 치킨 컬렉션’
던킨, 귀리활용 ‘오프그레인라 필드’

따뜻한 봄 날씨에 3월 말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본격 해제되자 외식업계는 피크닉 메뉴 출시에 분주한 모습이다.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국내 여러 공원과 캠핑장 등 외부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작은 사이즈의 휴대성은 물론 깔끔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신메뉴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샌드위치는 다양한 피크닉 음식 중에서도 단연 인기다. 간단하게 포장할 수 있으며, 커피와 차 등의 음료와 궁합이 좋은 것이 이유다. 프리미엄 분식 스쿨푸드는 지난 21일 도쿄 맛집 ‘아마노야’의 레시피를 활용해 일본식 샌드위치 ‘홀그레이트 타마고산도’를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는 흰 식빵 사이에 두툼하고 몽글몽글한 계란을 넣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빵 한 쪽 면에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 짭조름



홀그레이트 타마고산도.

/스쿨푸드

한 맛도 경험할 수 있다. 현재는 스쿨푸드 딜리버리 직영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며, 반포한강공원과 잠원한강공원에서 간편하게 배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샌드위치 브랜드 씨브웨이는 봄 시즌을 맞아 더 건강하고 신선한 ‘2023 SS 치킨 컬렉션’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선보인 ‘2023 SS 치킨 컬렉션’은 기름 대신 오븐에 굽거나 수비드한 로스트 치킨과 로티

세리 바비큐 치킨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씨브웨이 고유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이용해 빵부터 치즈, 채소, 소스 등 본인의 취향에 맞게 샌드위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샌드위치 대신 샐러드를 선택할 경우 더욱 다채로운 채소와 토핑의 궁합을 경험할 수 있다.

헬스플레저 트렌드와 피크닉 시즌이



오프 그레인라 필드.

/던킨

맞물려 샐러드 출시도 한창이다. 특히 노브랜드 버거는 ‘소식 트렌드’에 집중한 ‘그린샐러드 미니’를 20일 출시했다. 용량은 기존 그린샐러드의 절반 수준인 100g이며 양상추, 적채, 방울토마토 등 채소와 감칠맛을 자랑하는 드레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노브랜드 버거는 이달 바삭한 패티를 경험할 수 있는 ‘치폴레 핫 치

킨’도 새롭게 출시했다. 치폴레 소스와 치킨 패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으며, 타버거 프랜차이즈의 치킨 메뉴 대비 약 2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도 피크닉 음식으로 빠질 수 없다. 던킨은 풍부한 영양을 지닌 귀리(오프)를 활용한 ‘오프 그레인라 필드’를 20일 선보였다. 신메뉴는 오프리 오프 음료로 만든 필링이 가득 들어갔으며, 그 위에 바삭한 그레인라를 첨가해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야흐로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움츠렸던 야외 활동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피크닉 메뉴로 제격인 여러 신메뉴 출시에 한창이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야외활동을 펼치는 소비자를 공략하는 업계의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노연홍, “6대 제약바이오 강국 만들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미국·유럽·아시아 등 진출 가속화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본격 공략

새롭게 취임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의 육성 정책에 발 맞춰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전폭적이고 강력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조에 산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구체적인 성과로 화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융복합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분석했다.

노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 인류의 생명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자국민의 건강과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적 딜레마를 안겼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며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기술 패권의 핵심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국민 앞에 제시된 정부의 핵심 전략과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역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맞춰 취 핵심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K-SPACE)의 운영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미국·유럽은 물론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와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해 의약품 수출도 2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 세계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맥순환장애 방지하면 다리괴양 가능성↑

동국제약, ‘센시아’ 종아리 부종 개선

발·다리가 붓고 아픈 정맥순환장애는 성인의 약 50%가 경험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이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맥순환장애를 방지하면 하지정맥류나 다리괴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전신 순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국제약이 2022년 시장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정맥순환장애 경험율은 36.7%이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정맥순환장애 경험율은 61.9%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장애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 질환이므로 평소 본인의 다리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증상이 있다면 센시아처럼 입증된 의약품을 통한 관리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센시아는 ‘센텔라정량추출물’이 주



성분인 식물성분의 정맥순환 개선제로, 콜라겐 합성 촉진을 통한 정맥의 탄력 향상,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및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해 발, 종아리, 다리가 붓고 아픈 정맥순환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준다. 센텔라정량추출물 임상연구에 따르면 복용 1개월 후 통증, 둔중감, 경직감, 야간경련 등이 70% 이상 감소했고, 종아리와 발목의 부종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ESG 디지털 전환 본궤도

청소년에 올바른 친환경 세계관 전해

LG생활건강은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올바른 친환경 세계관을 전하고,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빌러쓰는 지구월드’를 개설한다. 빌러쓰는 지구월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개발사인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가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디토랜드’를

기반으로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 등과 공동 제작했다. 현실과 가상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타버스 구축을 시작하면서, LG생활건강의 ESG 디지털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쓰레기 분리배출 ▲손 씻기 ▲세안 ▲양치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필수적인 생활 습관을 배우고, 각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세경 기자

갱년기 영양제 ‘루바브&리바이탈’ 선택

동아제약, 멀티비타민·미네랄 배합

동아제약은 갱년기 영양제인 ‘루바브&리바이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루바브&리바이탈은 여성 갱년기에 부족한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도와주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함유한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이다. 갱년기는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폐경의 시작으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해

발생하게 된다. 안면홍조, 질 건조증, 발한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수면 장애 및 우울증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동아제약의 루바브&리바이탈 제품은 루바브 성분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아닌과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독점적으로 배합했으며 여성 건강에 좋은 석류, 홍경천, 은행엽, 콜라겐 등을 부원료로 함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y, 저당 유산균 음료 ‘케어온 당밸런스’

hy가 저당 유산균 음료 시장을 공략한다. hy는 균형영양식 ‘케어온 당케어’에 이어 ‘케어온 당밸런스(이하 당밸런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제품은 당뇨관리 플랫폼 기업 ‘닥터다이어리’와 협업해 개발했다. 자사 일반제품 대비 당함량을 79% 줄인 저당 제품이다. 100ml 기준 당함량은 1.5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저당 표시기

준을 충족한다.

당밸런스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이다. 대체당 ‘알룰로스’를 적용한 저당 설계가 특징이다. 기능성 소재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도 11200mg 함유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및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수용성 식이섬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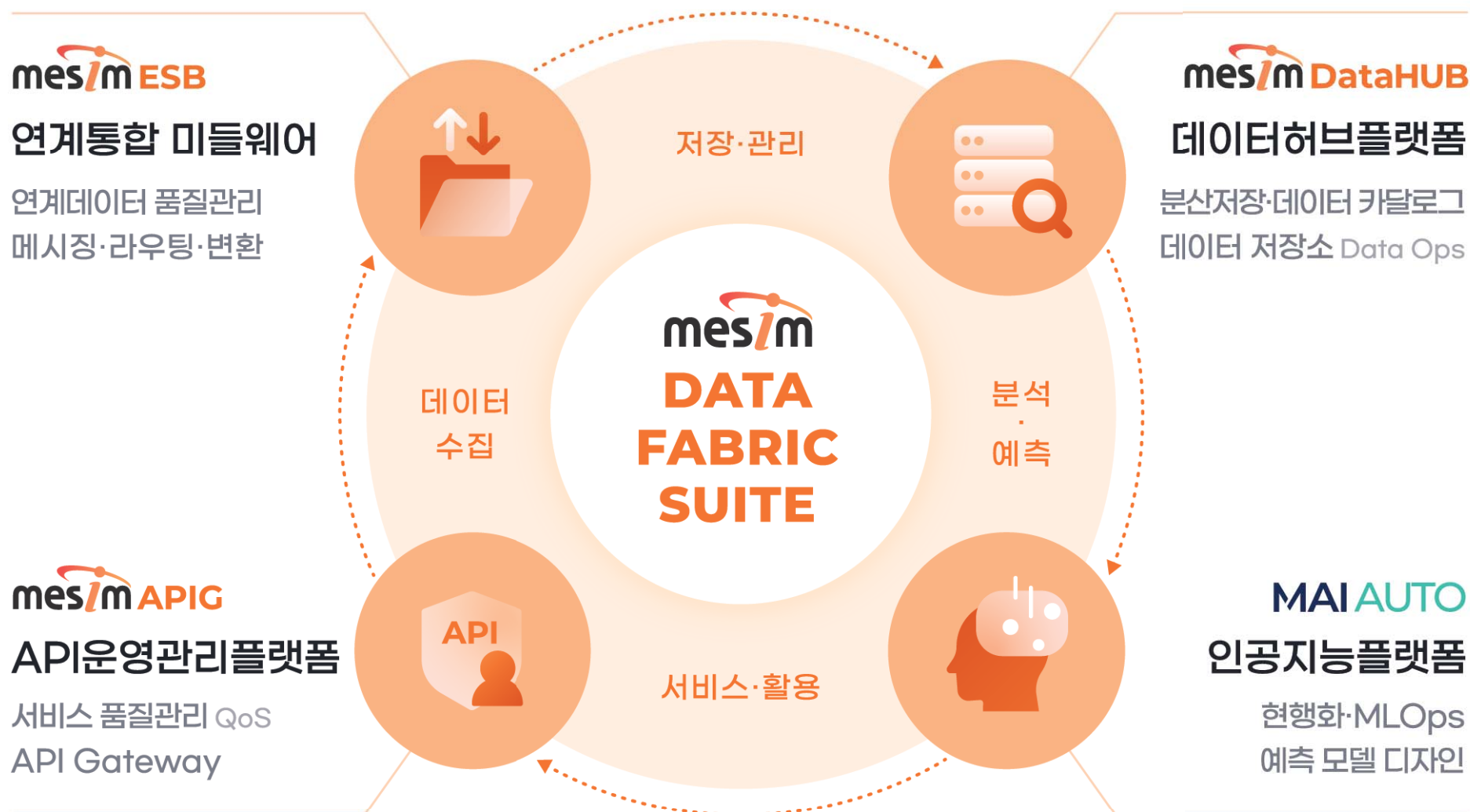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IBK기업銀-씨티케이그룹, 혁신기술 사업 협력

IBK기업은행은 지난 28일 화장품 플랫폼 기업 씨티케이그룹과 ‘혁신기술 기반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김인태 혁신금융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정인용 씨티케이그룹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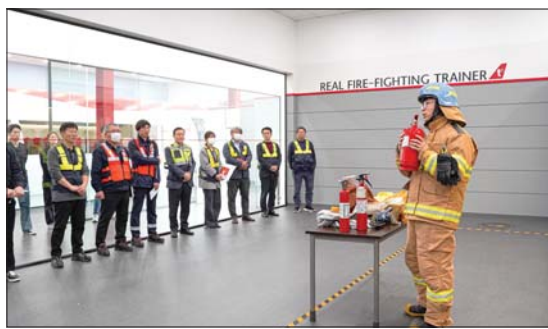
금호건설, 임직원 참여 기부 캠페인 전개

금호건설이 ‘DOVE’s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DOVE’s 캠페인’은 ‘직원참여(DO LOVE)’와 ‘지속가능(Sustainable)’의 합성어로 금호건설 임직원의 참여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왼쪽 네번째)과 황영기(다섯번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건설



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개발 장학팀 2기 선발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하 ‘퓨처랩’)은 인디게임 개발 장학팀 2기를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장학팀은 퓨처랩과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협력해 선발한다.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장학팀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일게이트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티웨이항공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티웨이항공

동국대 총동창회, 문선배 회장 선출

〈신화종합건설 회장〉

동국대 총동창회는 지난 28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사진)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선임회장은 2017년부터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해왔으며 2022년 2월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과 동경장학회 이사장 등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경제부문을 수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조현준 회장, ‘2023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수상

〈효성그룹〉

한국경영학회 만장일치 선정 수소산업 등 미래성장가치 향상 조 회장 “고객몰입경영 지속 실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제성장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성은 28일 조 회장이 ‘제38회 2023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은 한국경영학회가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경제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1987년부터 시작해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조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스파텍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1위 제품을 기반으로 효성이 글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데 더해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첨단 신소재 개발 ▲친환경 사업 확대 등으로 미래성장가치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객 몰입 경영’으로 기업 경영 본원적 목적을 산업계에 다시

환기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등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수상 소감으로 창업주인故 조흥제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인한 내용을 소개했다. ▲고객과의 신뢰 확보 ▲항상 세계 1등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

는 것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 등 3가지 경영 원칙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VOC)’를 경청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으며,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회장은 “싱글래터티의 시대에서 고객을 다면적 다차원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한발 더 빠르게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고객몰입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LG, 美 에너지 스타상 수상… 지속가능 기술력 입증

삼성전자 수상업체 유일 2관왕
LG전자 지속가능 최우수상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삼성전자 주요 제품과 수상 로고

가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수상 업체 중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했다. 국내 최초로 2013년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10회째 ‘제조사 부문’ 수상 기록을 이어갔고, 사업장 전력 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수여하는 ‘에너지관리’ 부문에서도 최

고 등급인 ‘지속 가능 최우수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기업 기반 전력 관리 프로그램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 에너지 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새로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공조와 조명 시설 등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4.7% 절감했다. 건물에 대한 에너지스타 인증을 12개로 전년 대비 2배 확대하며 미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건물 인증을 보유하기도 했다.

지난해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은 474개다. 삼성전자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24%

늘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분야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았다.

LG전자는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2년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후 10번째 에너지스타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LG전자는 지난해 북미에서 6초에 1대씩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을 판매했다. 전제 제품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톤 수준으로, 미국 워싱턴 D.C 가정이 2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수준이다. 아울러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수명 기간 1300억 리터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 판매 매출도 지난해 43억달러로 전년 대비 10% 가량 늘었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메디페인 50대 기증… 장애인 재활 지원

서울재활병원에 메디페인 전달
치료시설·중증환자 등 활용 예정

LG 메디페인(사진)이 어린이 장애인 재활에 활용된다.

LG전자는 최근 서울재활병원에 LG 메디페인 50대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LG메디페인은 만성 통증을 완화



증도 획득했다.

이번에 기증된 제품은 서울에 유일한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해주는 의료기기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 식약처 정식 인

다. 재활병원에 치료시설과 중증환자, 유관 시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LG전자 HE사업본부 커뮤니티사업담당 남혜성 상무는 “LG전자는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다”며 “LG 메디페인이 고객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1억 8000만원 ‘쾌척’

에쓰오일(후세인 알 카타니·사진)은 29일 서울마포 본사에서 ‘2023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에 공연예술 후원금 1억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에쓰오일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에쓰오일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17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3만 5000여명을 초대했다.

올해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코미디쇼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인사

- ◆뉴스1 ◇대표이사 사장 △이영섭
- ◆한국문화진흥 ◇신임 대표이사 △이상철
- ◆BNK금융그룹 ◇신규 선임 △부사장 하근철
- ◆부산은행 ◇신규 선임 △상무 김영규
- ◆경남은행 ◇신규 선임 △상무 이주형
- ◆BNK캐피탈 ◇신규 선임 △부사장 구교성
- ◆BNK투자증권 ◇신규 선임 △총괄사

장 성경식

- ◆BNK저축은행 ◇신규 선임 △부사장 이승제
- ◆BNK신용정보 ◇신규 선임 △전무 박진욱
- ◆BNK시스템 ◇신규 선임 △부사장 강문성
- ◆호반그룹 ◇(주)대한전선 △대표이사 송종민 △경영전략부문장 김준석 △경영관리실장 김용서 ◇(주)호반프라퍼티 △대표이사 박재욱 ◇(주)호반TB M △대표이사 김재용 ◇(주)대아청과

△대표이사 이상용 ◇(주)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 최은주 ◇호반그룹 △준법경영실장 박길성 △기획홍보실장 김철희

부음

▲박석호씨 별세, 홍지영(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씨 장인상 = 29일 오전 9시40분, 광주 서구 매월동 국빈장례식장 301호, 발인 31일 오전 7시. 062-606-4000

인구 소멸 시대의 부동산 격차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얼마 전 강원도와 태백시는 정기 재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즉, 그동안 해당 교도소 신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태백시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비로소 신속한 사업진행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까지 설립하고 지역사회 1만여명의 서명을 모은 끝에 집값,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해 서라도 지역경제의 부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탄광사업의 활황기가 저물어간 태백시는 어느새 인구가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소멸을 앞둔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 기존 교정시설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송군은

남자 수형자보다 면회인이 더 많은 여자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의 체육관, 편의시설조차도 지역주민과 공유하자는 입장이다.

교도소 건립의 경제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 수형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형벌의 일부로써 당연히 스스로 해결하기 마련이다. 즉 일부 교정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오는 효과 이외에 지역주민 채용은 많아야 수십 명이다.

하지만 소멸위기의 도시들은 이 정도의 경제효과도 아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주민들의 자산가치를 최소한이나마 유지 시켜줄 유일한 방법이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압구정로 남쪽, 즉 신사동 이남 지역은 강남으로 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도 논밭이 뒤섞여 있는 자곡동, 세곡동,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곳까지 같은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전체 강남구 중에서 압구정동의 면적은 약 10%도 되지 않는다.

그 지역을 선점한 사람들의 생각은 완고하다. 압구정에서는 어느 한강 다리를

건너는지에 따라 용산구, 명동을 갈 수도 있고, 성수동을 갈 수도 있다. 모든 강남 상권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펼쳐져서 도산대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로를 건너가면서 차례로 사그라든다.

부동산 부자들은 과거를 자주 회상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대하는 학문적 자세로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들은 바뀌는 정책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인근 기반시설확충 등의 호재도 가볍게 넘긴다.

양극화 이야기가 아니다. 좁은 국토에서도 거의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두 지역 중 한 곳은 살아남을 기회를 엿보고, 다른 곳은 돈으로 기회를 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투자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화제를 다시 교도소 이야기로 돌려보자. 교도소 유치는 소멸위기의 소도시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 기피시설의 향후 소멸과 대응방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구가 줄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조차 줄어든다. 작게나마 경제효과를 누리게 되는 몇 년이 지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두가 알고 있다. 인구 감소는 모든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

/로이에 아시아컨설팅 대표

트랙스 크로스오버 흥행에 답이 있다



기저수첩

양성운
(산업부)

코로나19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급변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와 중국산 와이어링 하네스(차량용 전선 봉치)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로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를 위해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상 기다려야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또 대리점을 방문해도 과거 영업사원들은 가격 할인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응했던 모습을 사라졌다. 차량을 구매할거면 계약하고 기다려라는 정도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차량 가격은 연식 변경이나 부분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

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차량 가격은 2020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 차량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현대차·기아의 차량을 6개월 이상 기다리며 구매했다.

당시 주변에서는 현대차·기아를 제외하면 다른 브랜드는 신차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결국 경쟁 제조사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출시하면 언제든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는 KG모빌리티(전 쌍용자동차)의 토레스와 한국지엠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되면서 명확해졌다.

토레스는 중형 SUV로 출시됐지만 가격은 2000만원 후반대로 출시됐다. 토레스 T5 트림은 28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경쟁 모델인 현대차 쏠타페는 3252만원부터 시작하며 쏘렌토는 3002만원부터 시작한다. 토레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토레스의 사전계약대수

는 3만대 이상을 기록하며 위기의 쌍용차가 부활할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국지엠이 최근 출시한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205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됐다. 경쟁 모델인 현대차 코나와 아반떼, 기아 쉼터스 등과 가격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섰다. 사전계약도 4일 만에 1만대를 가볍게 넘겼다. 한국지엠은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4대 거점에서 대규모 전시 및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두 회사가 오랜기간간 내수 시장에서 침체기를 겪었지만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가성비다. 한때 내수 지상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KG모빌리티와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가 10% 수준으로 떨어진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모델을 출시하는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6				8	4		
	7			6			
5	3			1			
2						7	
		3		5		6	
	1						3
				2			6 8
				8			9
		7	9				1

			8		4		
					5		
6				1		2	4
			4		2	1	
				3	5	7	
			5	8		6	
5	8			1			2
				5			
				3		9	

정답

1	9	2	9	7	6	2	8	8
7	6	2	9	8	8	9	2	1
8	9	8	2	1	2	6	9	7
8	7	9	2	2	9	8	1	6
2	8	9	6	9	1	8	7	2
6	2	1	7	8	8	9	9	2
9	2	8	1	6	2	7	8	9
9	1	6	8	9	7	2	2	8
2	8	7	8	2	9	1	6	9

8	9	6	7	8	2	9	2	1
9	1	7	8	2	9	2	6	8
2	8	2	6	9	1	7	8	9
8	2	9	1	8	9	7	6	6
6	7	9	2	9	8	1	2	8
9	8	1	2	6	7	8	9	2
7	2	8	1	8	2	6	9	9
1	9	8	9	2	6	2	8	7
2	6	9	8	7	9	8	1	2

과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쥐

오늘의 운세 3월 30일 (음 2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조상님은덕이 각골난명체骨難忘이다. 48년생 자녀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60년생 상대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지 마라. 72년생 어디서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84년생 오늘 비가 온 다해도 기차여행은 출발이다.

소

37년생 집을 잡혀주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테니. 49년생 나뭇잎이 떨어진 것이 엇제인데 새색이 나기사자. 61년생 인생의 최고 선물은 건강. 73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85년생 오늘은 황금색상이 행운을.

호랑이

38년생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50년생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니 낙락장송의 성삼문이 생가. 62년생 11시 건널목조심. 74년생 늦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86년생 형제가 늘 우물아래 돌을 떨어뜨리는 격으로 방해한다.

토끼

39년생 재개발단체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51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성취시킨다. 63년생 주는 것이 기쁨을 아는가. 75년생 레일을 벗어 나지 말고 걸여라. 87년생 덧없는 한 때의 꿈을 꾸어보는 것도 젊음.

용

40년생 이동 운이니 산소방문도 무탈. 52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64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76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88년생 이른 아침부터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게 되니.

뱀

41년생 자녀의 부채로 집을 떠나 살아가야 하니 가슴 아프다. 53년생 인천에서 친구가 찾아온다. 65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7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림. 89년생 노심초사한 결과가 아주 좋게 마무리된다.

말

42년생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자. 54년생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6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78년생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90년생 창입하기 전에 경험자를 찾아가면 지혜가 생긴다.

고양이

43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린다. 55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67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79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91년생 임금 뉘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견마지로犬馬之勞이다.

원숭이

44년생 며느리가 집안을 쥐고 흔들어도 내 팔자소관. 56년생 생일이라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다. 68년생 일도 많지만 즐거움 하루이다. 80년생 사랑과 믿음은 상관관계이니 함께하는 약속. 92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

닭

45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5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69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81년생 초심을 생각하고 힘내라. 93년생 오늘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솟아날 구멍은 있다.

돼지

4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58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70년생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82년생 부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재물이 늘어날 수밖에. 94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

돼지

47년생 오전부터 행운이 함께. 59년생 기술을 배우다가 지친다고 포기말라. 71년생 건질 수 없는 슬픔도 세월이가면 희석이 된다. 83년생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보답이. 95년생 자기의 능력은 헤아리지 않고 질책하는 상사에게 감정표지 말도록.



김상회의四季

노력도 함께

전제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산업사회 시대가 오자 민중의 권리가 향상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군주가 군림하던 전통사회 때보다는 경제적 중간계급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각 나라의 정당들은 포퓰리즘정책을 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작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땅 파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재원이 있어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인데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려니 선심공약부터 남발하게 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라 할지라도 부의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의 공정분배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항상 하는 화두가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 종종 마스크를 통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사연들과 비극을 보자면 마음이 참담해온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개선되기는 힘든 부분도 많다고 본다. 왜냐면 올바른 시민의식이 전제될 때 제도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만 해도 부정승차가 매년 증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금도 17억원이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청소년이나 어린이전용카드 연영카드카드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심심찮다는 것이다. 자, 이쯤 되면 부끄러운 시민의 자화상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인가. 각자 모두는 자신의 업으로 살아간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무임승차할 일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0개국서 162건 수출상담… 137억 규모 계약 체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

美 워터리아 등 글로벌 18개사 참여
MOU 16건, 기밀유지협약 1건 체결
환경부 “물 분야 300억 수출 목표”

이달 열린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국내 기업들이 약 137억원 상당의 수출을 달성했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1~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석한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이 총 137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지난 2002년 시작, 올해 20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워터리아와 중국 베이징 월신 그린 테크놀로지 등 10개국 바이어(Bu-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세계물의 날 기념식을 마친후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를 찾아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yer) 18개사가 참여했다.

박람회에서 총 162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업무협약(MOU) 16건, 기업 간 기밀유지협약(NDA) 1건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수출 본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8개국 총 19건이다. 케냐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대만·인도네시아 각 2건, 태국 1건이다. 규모로는 약 137억원(1055만 달러)에 달한다.

환경부는 미국수도협회(AWWA)와

미국물환경연맹(WEF), 대만물협회(CTWWA) 등 해외 상하수도 관련 단체와 해당 국가에 국내 물기업이 진출하면 정보 제공과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물산업 분야 수출액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다음 달부터 ‘물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체결된 협약이 안정적으로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물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올해 물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동반위-폴무원식품

210억 상생 프로그램 운영

폴무원식품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폴무원식품과 지난 28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협력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폴무원은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2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한다.

이는 협력 중소기업 임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ESG경영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변동분 반영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고리2호기, 내달 운영허가 만료… 일시 가동 중단

산자부 “탈원전 정책에 철차 지연”
한수원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원전 고리2호기가 상업운전 이후 처음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 ‘탈 원전’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이 지연됐고, 내달 8일 처음으로 운영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재가동할 방침이다. 재가동 시점은 빨라야 2025년 6월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원전을 대체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경우 연간 약 1조5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내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뉴시스

고 밝혔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정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되

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감안 시,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돼야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에만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등과 설비개선 등 계속운전 절차는 통상 약 3.5년이 걸린다.

그러나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도 수명만료 5~2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했었다.

650메가와트(MW) 규모 고리 2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5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며 “고원가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약 1조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잠정) 재가동한다는 목표다.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이노비즈協-대한상사중재원

분쟁 중재 서비스 고도화

이노비즈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잡고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 예방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을 위한 중재·조정·알선·상당 등의 서비스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한국공항공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업무 추진의 투명·청렴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와 분석을 통해 2023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주요사업 운영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회계·UAM 분야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해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공사 핵심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소 등 공항현장 동행점검을 실시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공항공, ‘AI X-ray’ 판로개척 나서

세계 보안엑스포 참가… 솔루션 소개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세계 보안 엑스포’에 ㈜딥노이드, ㈜씨엔아이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X-ray 검색 장비를 전시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세계 보안 엑스포는 물리보안과 정보보호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통합 보안 전시회로 올해

에는 10개국 355개 기업이 참가한다.

공사가 이번에 전시하는 AI X-ray 검색 장비는 국내 1호 엑스선 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획득한 씨엔아이의 X-ray에 공사와 딥노이드가 공동 개발한 AI X-ray 자동판독 솔루션을 탑재한 제품이다. AI X-ray 검색 장비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탐지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해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육안판독 지원을 통한 인적오류 최소화로 보안검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가치 259조 달해”

국민 한사람 당 연간 499만원 혜택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원에 이르고 국민 한사람 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산림에서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한다.

평가항목 12개를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조6000억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산림경관제공기능 31조8000억 원(12.3%), 산림휴양기능 28조4000억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조2000억원(5.9%) 순으로 평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美, 中 하이테크비전 자회사 5곳도 제재…인권침해 혐의
- ▲ “日, G7에 자동차 탄소배출 2035년까지 50% 감축 제안”



- ▲ 바이든 지지율 40%…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
- ▲ 中허리띠 부총리 “외자 유치·활용 더 강화할 것”

/사진 뉴시스



- ▲ 美 전기차 업체 루시드, 실적 부진에 직원 1300명 해고
- ▲ 日기시다 총리 “중의원 해산, 지금 생각안해”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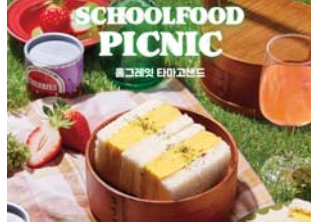


벨리곰, 꽃동산
“인증샷 성지로
봄소풍 가요”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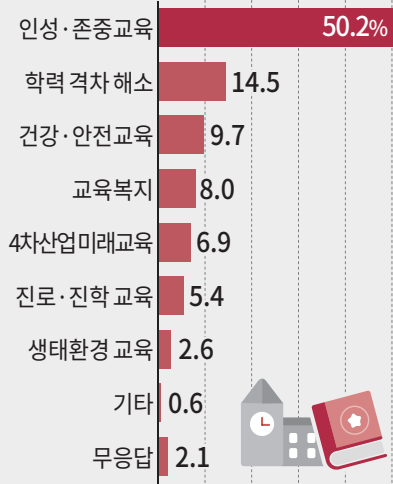
Life

외식업
벚꽃 맞이
피크닉 메뉴 ‘봄물’
L2



서울시민 절반 이상 교육정책 ‘만족’... 인성교육 우선시해야

학교 교육 최우선 해결 과제



서울시 교육 정책 시민 여론조사 유치원-초등-고등-중등 순 만족 인성 등 기본 소양 교육 강화 요구 76%,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움 돼

서울시민의 약 53%가 서울시 교육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학교 교육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인성 및 존중 교육’을 꼽았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21~27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 정책 현안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시의 교육 정책에 대해 ‘만

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53.1%로, ‘불만족한다’ (36.8%) 보다 16.3%포인트 많았다. 나머지 10.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학령기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50.1%가 ‘서울시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56.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별로 살펴보면 유치원(69.2%), 초등학교(64.6%), 고등학교(53.4%), 중학교(50.7%) 학부모 순으로 시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서울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인성 및 존중 교육’ (50.2%)을 꼽았다. 이어 ‘학력 격차

해소’ (14.5%), ‘건강·안전 교육’ (9.7%), ‘교육 복지’ (8%), ‘4차 산업혁명 미래 교육’ (6.9%), ‘진로·진학 교육’ (5.4%), ‘생태 환경 교육’ (2.6%) 순이었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 관련 건의 사항으로는 ‘인성·예절 등 기본적 소양 교육 강화’ (27.6%)가 1위를 기록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 (6.1%),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 수립’ (6%),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5.7%), ‘교원 강화와 교직원 처우 개선’ (5.4%),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마련’ (5.1%),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교육 및 지원 확대’ (4.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5개 교육 정책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다. ‘기초학력 지원’,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도움된다’고 답한 응답 비율도 각각 73.6%, 73.2%에 달했다.

반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와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각각 65.1%, 61%에 그쳐 다른 정책들보다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향후 서울시 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양재역 일대 통합개발... ‘광역 교통’ 거점으로

GTX 환승센터 등 입체복합 개발 입찰 거쳐 내달부터 용역 착수

서울시가 강남 도심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양재역 일대(25만㎡)를 광역 교통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달 초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통해 양재역 중심지구로 지정된 용역 대상지에는 연구개발(R&D)·업무·상업 시설과 함께 서초구 복합청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환승센터 등이 들어



‘양재 GTX 환승 거점 통합 개발 마스터플랜’ 예상 조감도. /서울시

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재역 일대 공공청사, 문화시설, 환승 주차장 등 핵심 거점시설에 대한 연계 개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양재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환승센터 같은 주요 교통시설 간 원활한 연결을 통한 입체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목표다. 시는 입찰 공고를 거쳐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입체복합 개발을 유도, 도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양재역 일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적 도시공간 구상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도시계획시설이 다양한 미래사회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한전-신한금융그룹

도시제조업 안전한 작업환경 만든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맞손 의류·금속 등 영세 작업장 설비 지원 제조업체 일부 선정, 화재보험 제공

서울시는 노후화된 도시 제조업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화재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력,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의류봉제·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등 영세한 도시 제조업 작업장 1500여곳의 생산성 향상 설비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900만원을 보조한다. 사업장 자체 부담은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열악한 제조 현장의 불량 설비를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돕는다. 신한금융그룹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부터), 백우기 한국전력 남서울 본부장,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임수환 신한은행 부회장. /서울시

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 기회가 제한됐던 소규모 제조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화재보험을 제공한다.

시는 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반지하 세입자 1470가구 이주 지원

침수지역 정비 등 침수방지 대책 마련

인천광역시시는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협회와 건축정책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가 이번에 마련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은 거주자

(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시는 앞으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안전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

또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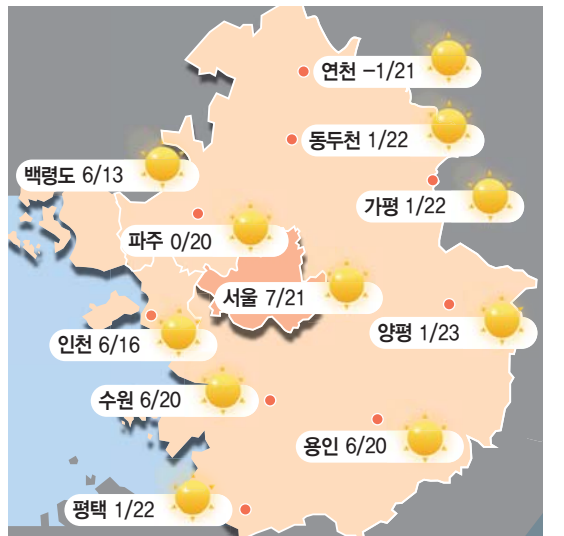
전자상거래 피해 15%↑ 50·60대 피해상당 급증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15% 증가하고, 50~60대 피해 상담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이하 센터)는 29일 ‘2022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센터에 들어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8723건으로 2021년 7586건 대비 1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0대 이상의 피해 상담이 1191건 (13.7%)으로, 작년(565건)보다 2.1배 늘었다.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358건 중 41.3% (148건)가 50~60대에 집중됐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국남녀 쇼트트랙 선수권, 내일 의정부서 개막
▲“스포츠 진흥에 최선”...박세리, 체육진흥공단 홍보대사 /사진 뉴시스

▲피겨 銀 차준환 세계 3위 등극...이해인은 4위
▲KIA, “뒤통 요구 의혹” 장정석 단장 해임...“용납할 수 없어”



▲데뷔골 아쉬웠던 오현규, 셀틱서 득점포 노린다
▲아르헨 이긴 사우디 르나르 감독, 4개월만에 사임 /사진 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루안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2시가 되자마자 늘봄학교로 달려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퍼즐도 완성하고
드디어 시금치도 맛있게 먹었고
처음 배운 요리도 척척 해냈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루안이 칭찬 많이 해주세요!

루안이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은 저녁 8시까지
돌봄 공백을 채우는 늘봄학교와 함께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오늘을 키워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초등학교 1학년 루안이와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부모님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방학기간까지 돌봄 시간이 확대된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